고려대학교
2006 학년도 정시 논술 시험
출제 의도 및 문제 해설
- 2006 년 1 월 10 일 시행 -

2006 학년도 고려대학교 정시모집 논술 시험은 '질서'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흔히 질서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정작 "질서란 무엇인가?", "질서는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라는 물음을 접하면 대답하기가 쉽지 않다. 이 말의 정확한 함의, 속성, 기능 등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이다. 사전적으로 질(秩)은 공간적 안배를, 그리고 서(序)는 시간적 차제(次第)를 의미한다. 따라서 질서는 공간적으로, 그리고 시간적으로 적절하게 순서 잡힌 배열을 의미한다. 전체를 구성하는 모든 부분이 각기 자신의 적절한 위치에 자리 잡고, 이렇게 제자리에 놓인 것들이 함께 만들어 내는 조화가 곧 질서의 아름다움이요, 좋음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질서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기보다는 질서는 무조건 좋은 것, 더 이상 아무런 논의와 반성도 필요 없이 그저 수용하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때때로 질서는 그 생성 과정의 임의성과 운영 방식의 부당성으로 인해 적지 않은 역기능을 가져오기도 한다.

이런 맥락에서 2006 학년도 고려대학교 정시모집 논술 출제위원들은 수험생들에게 질서의 다양한 생성 기제와 종류, 여러 속성과 측면, 그 순기능과 역기능 등에 대해 다각도에서 생각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주어진 질서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창조적으로 재해석하고 재구성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 때문이다. 물론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규정될 수 있는 현상에 대한 물음을 통해 수험생들이 다층적인 이해와 분석, 창조적인 사고와 표현을 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였다.

이번 논술 시험은 지금까지 고려대학교가 논술 시험에서 채택하고 있는 기본 틀을 이어받고 있다. 네 개의 제시문을 통해 수험생들로 하여금 '질서'의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논제는 이 제시문들을 포괄할 수 있는 하나의 공통 주제를 밝히고, 제시문의 논지들이 어떠한 상호 연관 속에 있는지를 설명한 다음, 공통 주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일정한 분량의 제시문들은 수험생들의 이해력과 분석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고, 그 논지들의 상호 연관 관계를 설정하도록 한 것은 수험생들의 심층적 사고 능력을 측정하고자 한 것이며, 그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도록 한 것은 논리력과 표현력을 평가하고자 한 것이다.

제시된 네 개의 글들은 각각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의 상호 협의가 없는 지배 질서에 대한 비판, 바람직한 정치 질서로서의 조화, 수적(數的) 질서의 아름다움, 그리고 자생적이고 자기 조정적(selfcoordinating) 질서를 보여준다.

첫 번째 제시문은 한 사회의 질서가 소수의 지배자들에 의해서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방식으로 결정될 때 그러한 질서는 필연적으로 '불행한 사회의 질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 요지이다. 이 글에서 비판받는 '불행한 사회의 질서'는 사회 구성원들의 협의(協議)보다는 지배자 한 사람과 그의 거수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소수 엘리트에 의해 규정·구성되는 질서로서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합의와 협력에 의해 형성되는 대안적 질서와는 거리를 가진 것이다. 이 글은 소록도 나환자촌 병원에 현역 군인이 새 원장으로 부임해 오면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들을 다룬 이청준의 장편소설 □당신들의 천국□에서 발췌하였다.

두 번째 제시문은 중국 선진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국어(國語)□ 중 「정어(鄭語)」에서 인용하였다. 정(鄭)나라 환공이 "주(周)나라가 장차 쇠망하겠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사백(史伯)이 답하는 내용의 일부이다. 사백은 우주의 구조와 생성 가능의 근본 원리가 개별적이며 다양한 요소의 통일과 조화에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그러한 이론적 근거에 바탕하여 주나라가 "자기와 다른 것은 버리고 같은 것만 취하였기 때문에" 폐단이 일어났고 쇠망의 길을 걸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쇠망해가는 주나라 이후의 바람직한 정치 질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철학적 원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글이다. 그는 주 왕실 중심의 천하 질서로 되돌아갈 것이 아니라, 각 제후국의 다양함을 그대로 인정함으로써 획일이 아닌 조화를 도모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천하 질서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요컨대 바람직한 정치·사회적 질서는 "서로 다른 사물끼리 서로를 보충해 주는" 공존 공영의 '화(和)'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제시문은 수(數)의 계열에서 발견되는 규칙적 질서를 아름다움의 본질로 설명한 글이다. 전통적으로 아름다움은 비례, 대칭, 균제 등 '질서 잡힌 것'으로 이해되어 왔는데, 수는 피타고라스 이래 서양철학사에서 음악, 우주와 더불어 신의 형상으로서의 질서가 가장 완벽하게 구현된 이념적 실재로 간주되어 왔다.

따라서 본 제시문은 질서는 아름답고 좋은 것이라는 맥락에서 읽을 수 있다. 왜냐하면 수의 계열에 구현된 아름다운 질서는 신이 우주 창조의 원리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제시문은 M. C. 비어슬리의 □미학사□Ae*sthetics: From Classical Greece to the Precent* 에서 발췌한 것이다. 제시문 안의 인용문은 A. 아우구스티누스의 □자유의지론□De l*ibero arbitrio* 에 수록된 글이다.

네 번째 제시문은 사회주의와 정부의 시장개입을 비판한 자유주의 경제학자 하이에크의 저서 □자유헌정론□Th*e Constitution of Liberty* 에서 발췌한 것이다. 이 글은 사회적 질서가 권력에 의해 중앙집권적으로 만들어진다는 입장을 비판하면서, 자생적이고 분권적인 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자유로운 개인들이 상호 작용함으로써 만들어지는 다중심적 질서(polycentric order)가 가능하며, 이러한 질서 속에서 개인은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 글은 공통 주제인 '질서'를 사회적 차원에서 명백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권위주의적 지배 질서를 비판하고 있다.

이번 논술은 수험생들이 질서의 다양한 속성과 측면에 대한 제시문들 간에 설득력 있는 연관 관계를 부여하고, 그 공통 주제에 대해 다양하고 심층적인 사고를 전개하도록 하였다. 수험생들은 제시문의 함의를 참조하여,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는 부분에서 수험생들은 질서의 의미와 가치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한 논거와 설득력 있는 글을 통해 진술해야 한다.